

## 『신자생활의 첩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이장형 (백석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컨텍스트를 놓친 1930년대의 한국교회

### III. 『신자생활의 첩경』 분석

1. 책의 저자
2. 책의 구성과 특징
3. 장별 주제 및 윤리적 특징
4. 책 5, 6장 들여다보기

### IV. 나가는 말

\* 이 논문은 백석대학교 2014학년도 교내 정책연구 지원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of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in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Jang - Hyung

How would Japanese occupation and the principal ethical teachings of Christians have been developed? This paper will focus on this problem.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with respect to this subject, but a lot of this paper will adopt 'historical method, which is so far unknown and sheds light on Christian ethics literature. Published in 1935,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is not a traditional doctrine summary or Bible verse to repeat the level of teaching, but doctrinal content, scriptural content, personal ethical areas and social ethical area that encompasses a wide range of topics Features to be dealt with. Especially when Christianity and the Church were threatened to suffer recession in many respects,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did not lean to either personal ethics or social ethics, but through an integrated view suggest a solution to the troubled era. In other words, when the text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the Bible was in a crisis situation and could not offer a solution to the national problem,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way it tried to introduce a moral responsibility.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is deemed to have a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attempted to overcome the situation where the text and the context could not be shared.

**Key words:** Christian ethical understanding, *A straight road to Christian truth*, T. Stanly Soltau,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text of the Christian doctrine

---

## I. 들어가는 말

한국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고통의 시기로 불리는 일제 강점기는 다양한 성격을 갖는다. 1910년대부터 영세한 기독교자본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 일제의 자본주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지만 대부분의 토착자본가들은 식민지 경제정책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sup>1)</sup> 그러나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화, 근대화 과정의 시기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례로 현대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소비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백화점이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였다. 손정숙은 일제 강점기 당시의 백화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일본의 대규모 자본이 진출하면서, 백화점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설립,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당시 서울에는 5대 백화점이 있었다. 즉, 신세계 백화점의 전신인 미쓰코시 백화점, 미도파 백화점의 전신인 조지야 백화점을 비롯하여 미나카이, 히로다 백화점 등이 들어섰고, 이에 맞선 조선인 백화점으로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화신백화점이 있었다.<sup>2)</sup>

일제 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및 주요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윤리 문헌’<sup>3)</sup>들을 찾아보는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1) 강명숙, 『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사상』(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52.

2) 손정숙, “일제 시기 백화점과 일상 소비 문화”,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133.

3) 본 논문에서의 ‘기독교윤리 문헌’이란 기독교 유입 시기에 주로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 보급된, ‘초기 교리서들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한다. 장로교 초기교리서로는 『성교찰

런데 이런 유형의 연구가 쉽지 않은 것은 우선, 역사학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윤리학이 학제적, 복합학적 성격을 갖게 되므로 기반이 되는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학적 관점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윤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은 상당한 공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특히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어느 한쪽으로부터도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부담감도 있다. 윤리학의 가르침과 관련된 궤적을 추적한다는 것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고, 또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과정인 것이다. 사료의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들이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경우 윤리학과 관련한 예상 혹은 기대했던 내용들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정립에 관한 전반적인 역사를 살피는 과정에서 기독교 초기의 번역 위주 교리서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윤리적 논의 내용을 담고 있는 1935년에 발행된 『신자생활의 첩경』(信者生活의 捷徑)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개요를 섭렵한 후 ‘가정’, ‘남편’, ‘아내’, ‘남편’, ‘자녀’, ‘순종’, ‘혼인’, ‘오락’, ‘청지기’, ‘육체’, ‘시간’, ‘재정’ 등의 관점에서 전개된 윤리적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여러 문헌들 가운데 왜 『신자생활의 첩경』인가라는 질문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 내용 구성이 전통적인 교리 요약이나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적 내용, 성경적 내용, 개인윤리적 영역과 사회윤리적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특징이 있다. 특히 기독교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받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윤리나 사회윤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조망을 통해 시대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

리』(聖敎撮理), 『그리스도문답』, 감리교 초기교리서로는 : 『미미미 세례문답』(美以美洗禮問答), 『성경문답』이 대표적인 책이다.

때문이다. 즉 기독교가 성경과 교리라는 텍스트에 함몰되어서 당시 처해 있는 민족의 문제에 답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소개하려 했는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 결국, 『신자생활의 첩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공유되지 못한 상황 극복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외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1935년에 발행된 『신자생활의 첩경』은 시사점이 크다. 『신자생활의 첩경』 문헌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서신혜의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강점기 경제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sup>4)</sup>이란 논문을 통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유형의 재물을 무형의 인격과 연결시키는 점, 경제 주체를 ‘칭지기’로 보는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다고 의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이 문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의 연구는 1920-30년대 시기에 금주, 금연 등의 절제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상황을 논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에 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담긴 논의가 있었음을 탐구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윤리학적 관점에서 논의된 지금까지의 일제 강점기 관련 연구는 대부분 일제치하 절제운동, 사회경제 사상, 부의 문제, 분배 정의 등에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윤리 문헌의 한 권인 『신자생활의 첩경』을 분석

4) 서신혜, “기독교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 2013년, 149-177.

5) 그는 이런 유형의 문헌으로서 네 권의 저작을 소개했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했다. David McConaughy, 『금전(金鉞)은 인격시험품(人格試驗品)』(*Money the acid test*) (조선예수교장로회), William E. Biederwolf, 『순결(純潔)한 생활(生活)』(*The White Life for Man*) (조선예수교서회, 1930), T. Stanly Soltau, 『신자생활의 첩경』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35), 유여대, 『위인기담』(광명사, 1936). 특히 그는 네 권의 책의 소장처를 밝히며, 이 책들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었다.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정립”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서신혜의 연구는 매우 반갑고 고마운 연구로 받아들여졌다.

하고 오늘날의 프리즘으로 재해석하여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는 작업은 한국적 기독교윤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 기독교의 초기 문헌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기독교 초창기 윤리서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현대어 읽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윤리 문헌들을 현대어로 읽어내며 내용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작업은, 매우 단순한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적 기독교윤리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그 지평을 넓혀주는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II. 컨텍스트를 놓친 1930년대의 한국교회

이제 이 책의 연구 및 설정 배경이 되는 1930년대에 대한 의미 고찰, 책에 대한 전반적 소개, 구성과 특징, 윤리학적 의미 탐구 등의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삼일독립운동 이후 사회변화에 직면한 교회는 1920년대부터 밖에서 밀려오는 지적인 분위기의 변화, 반미적 경향, 경제적 시련, 일제의 탄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sup>6)</sup> 이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은 유물론과 무신론이었으며 과학만능, 향락, 도덕의 부패, 윤리의 배역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sup>7)</sup>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광수는 한국교회가 컨텍스트를 저버리는 오류를 냉철하게 지적했고 현세와 내세를 단절하는 이원론 현상, 교역자의 무지

6) 통사적인 교회사 서술에 있어서 1930년대는 '박해의 시기'이다. 신사참배 거부 문제로 상당수의 기독교학교들이 문을 닫고,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 교단 총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고, 각 교회의 청년회, 기독교절제회, 여자 절제회 등의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과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조선기독교청년연합회, 주일학 교연합회 등이 해체되는 것도 일제의 한국교회에 대한 비종교적인 탄압이었다. 김인수, 『일제의 한국교회 박해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12-116.

7) 민경배, 『韓國基督教會史』(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70.

(무식), 기독교의 무속신앙 전락 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 강점기 지식인들의 기독교 비판을 잘 보여주는 이광수는 ‘청춘’지에서 기독교 전반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상 나는 현시(現時)<sup>8)</sup> 야소교회의 결점으로 계급적임, 교회지상주의, 교역자의 무식, 미신적임의 네 개조를 거(擧)하였오, 다시 이를 통틀어 말하면 현시 조선교회는 전체적, 계급적이오, 야소교의 근본 특징인 자유 평등의 사상을 몰각하였으며 종교의 신앙을 인생의 전체로 여겨 신자 비신자의 구별을 선인, 악인의 구별같이 여기며<sup>9)</sup>

또한 이광수는 특별히 기독교의 성속의 이분법적 이해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원래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의 구별이 있을 리가 없을 것이오 인류에 복리를 주는 사업은 다 ‘하나님의 일’일 것이외다. 목사, 전도사 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하나님의 일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니 목사, 전도사도 기실은 하나님의 일을 담임(担任)<sup>10)</sup>함이요 상공업자나 학자나 기술가도 다 그 일부를 담임함이외다. 우리는 결코 일요일에 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봉사함이 아니라. 타 6일간에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하는 사업이 원통(온통)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외다.<sup>11)</sup>

192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는 정진해야 할 진로를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sup>12)</sup> 이때 그 틈새를 치고 새

8) ‘청춘지에는 현특으로 식자되어 있는데 문맥상 ‘현시’의 오식으로 보여진다.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11호) 1917년 11월, 79.

9)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82-83.

10) ‘청춘지에는 단임으로 식자되어 있는데 문맥상 ‘담임’의 오식으로 보여진다. 위의 책, 79.

11) 위의 책, 79.

롭게 솟구친 세력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었다. 사회주의는 현실을 직시하며 유물론으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고 이를 통해 기독교 내에 기생하여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새롭게 사회주의 기독교를 창출하고자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920년대부터 새로운 매력으로 등장한 사상이 사회주의였으며, 기독교는 사회주의와 사상적, 실제적으로 대립해야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사회주의의 국내 침투는 1920년경으로 볼 수 있지만 의식화되고 문제될 만한 적극성을 보인 것은 1922년 블라디보스톡이 소비에트 노동정부의 적군(赤軍)에 의해서 점령되고 나서부터의 일이며 1925년 일제 동경 정부가 소련을 승인한 이후 만주, 시베리아 및 일본에 거주하던 한인 공산주의자들이 국내에 귀국하여 반기독교운동을 전개하던 때 절정에 이르렀다.<sup>13)</sup>

사회주의는 평등과 평화를 부르짖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으며 누구나 부를 누릴 수 있다는 이데아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모토를 주창함으로써 그 매력을 발산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앞에서 언급한 이광수의 지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 들어 차츰 사회참여에서 이탈하여 현세와 내세를 단절 짓는 이원론적 삶의 구도를 구상하고 내세 지향적 태도에 경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침투할 만한 넉넉한 공간을 내어주었고 기독교 내부에서마저 사회주의 기독교인들을

12) 당시 한국교회의 다수 세력을 형성했던 장로교는 1932년 미국 진보주의자들이 추구한 'Re-thinking Mission'(선교의 재고) 사상에 맞서 사회복음주의 노선을 지양하고, 구령 사역과 복음전파에 전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현장을 등한시하는 경향으로 경도되었다.

13) 민경배, 『韓國基督教 社會運動史』(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88), 207.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적극 대항한 보수주의 신학자로서는 박형룡을 들 수 있으며 그는 『神學指南』을 통해 마르크스 종교론과 사회주의자들의 무신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변증신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형룡, “次代에 宗教는 消滅될가?”, 『神學指南』 10권 3호 (1928년 5월), 5. 박형룡, “無神論의 活動과 基督教의 對策”, 『神學指南』 (1930년 7월), 12-18.

배출하는 온상을 마련해준 셈이 되고 말았다. 사회주의는 1918년 이동휘가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조선사회당을 조직한 경위로부터 1922년 김규식과 여운형이 모스크바 제1차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기독교도동맹 이름으로 참여한 데서 볼 수 있듯 이미 기독교 내부에도 그 사상이 잉태되어 있었다.<sup>14)</sup> 1924년 『기독신보』에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있으면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와 동일하게 간주 하겠다<sup>15)</sup>는 사실이 게재되었을 정도로 사회주의는 대중의 친숙한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일제의 기독교에 대한 일련의 박해가 1930년대 초기 만주국 건국, 1937년의 중일전쟁, 1941년 2차대전이 발발하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분출했다.<sup>16)</sup> 모든 것이 군국주의의 전시 체제에 종속되었고 교회의 직무 역시 구령과 성화사역보다는 일제의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다. 일련의 박해와 아울러 한국교회가 접한 문제는 신앙적인 관점의 전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기독교는 삼일운동을 통해 교회가 응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복음의 본질이 구령 사역에 있음을 내세워 사회 참여를 경시함으로써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단절시키는 과오를 범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에 그 인프라의 혜택을 스스로 양도하는 우(愚)를 범했다. 반면 사회주의는 이 시기에 교회가 포기해버린 컨텍스트를 예의 주시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대중에게 당장 현실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로써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회주의가 위치했고 교회가

14) 민경배, 『韓國基督敎會史』, 377.

15) 『기독신보』 1924년 10월 15일.

16) 1930년대의 한국사회는 ‘윤리적 아노미’에 빠졌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황금광시대』 『경성기담』 등의 저작을 통해 1930년대의 사회상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전봉관은 “근대 한국인들은 물질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4년 6월28일자, A16면.

감당해야 할 사역을 사회주의가 대신하는 반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사회주의의 침투와 아울러 만주국 건국, 중일전쟁,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맞물리면서 교회는 더욱 퇴보의 조류에 휩쓸리는 처지가 되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루터와 칼빈 등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 사건의 영향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역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러 변화와 개혁 중 특히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자 결과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17)</sup>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노동, 직업, 재물에 대한 이해 등 소위 경제윤리적 변화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변화들이 수용 및 전파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사회와 교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된다.

한국에서 기독교 전래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때, 개항기의 기독교 수용 단계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번역서에 의해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전파, 확산되는 단계가 있었다. 이 때 다양한 ‘교리서’들이 보급되는데, 이런 책들은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내용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아울러 조금 후에 출간되는 ‘기독교윤리 문헌’들은 피상적이기 쉬운 종교성을 넘어서서 역동적이고 다양한 가르침들을 포함하게 된다. 물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가 여러 면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이며 성서적, 신학적 바탕에 근거한 가르침들이 번역 중심의 교리서에서 볼 수 없었던 구체적인 윤리적 가르침과 윤리적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종교개혁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장 대중적으로 알린 이는 막스 베버(Max Weber)이며,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II. 『신자생활의 첩경』 분석

#### 1. 책의 저자

이 책의 저자 솔타우(T. Stanly Soltau, 蘇悅道, 1890-1970)는 미 북장로교 한국 파송 선교사로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14년 9월 16일에 미북장로회 파송 한국선교사로 부인 메리 캠벨(Mary Campbell)과 함께 내한했다. 북장로회의 만주지역 한인 선교사업에 참여하여 그해 11월부터 평안북도 선천에 주재하면서 흥경 선교부 개설을 주도했다. 3년 동안 선천에 머물면서 만주를 왕래하며 멀리 서간도지역과 목단성 지역까지 선교활동에 임했고, 1917년부터는 평안북도 강계선교부의 일도 도왔다. 이후 건상 등의 이유로 전임이 결정되어 충청북도 청주 선교부로 활동지를 옮겼고 이곳에서 한국선교사를 사임한 1939년까지 사역을 감당했다. 홀드크로프트(J. G. Holdcroft), 로드(H. A. Rhodes) 등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북장로회 한국선교회 실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1935년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했다. 1934년부터 조선기독교서회 이사로 활동했고, 한때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For Every Christian a New Believer*(1916), *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1932), 『예언의 응험』(1934), 『신자생활의 첩경』(1936), 『이기는 생활』(1933년 역서) 등이 있다.<sup>18)</sup>

#### 2. 책의 구성과 특징

이 책은 사경회를 통해 신자들의 경건생활을 교육한 저서이다.<sup>19)</sup> 책은

18)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솔타우2”, 『기독교대백과사전(9권)』(서울: 기독교문사, 1983), 701.

19)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신자생활의 첩경”, 『기독교대백과사전(10권)』(서

46판 52면 순 한글 내려쓰기 체제로 조선예수교서회에서 발행되었는데, 저자는 서문에서 저작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적은 책은 참 신자의 생활의 필요한 요소를 간단히 알게 해 드리기 위하여 쓴 것이니 노형도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시면서 마음 속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이미 성공을 얻지 못한 까닭을 알게 하시며 새 은혜와 힘을 주심으로 이 앞으로 과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칠 만한 생활을 하게 하시기를 간구할 것이다.<sup>20)</sup>

내용은 모두 7장(사경회 7일 간에 맞춤)으로 나누어, 신자의 삶과 관련된 사항들을 성경을 인용하여 풀이했다.<sup>21)</sup> 이 문헌은 신입 교인을 위한 연구지침서의 성격을 지녔다.<sup>22)</sup>

‘신자생활’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신자된 이들의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체 7장으로 된 책의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 후반부는 실제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제 3장 신자와 주일성수, 제 4장 신자와 그의 가정, 제 5장 신자와 오락, 제6장 신자와 청지기, 제 7장은 신자와 경건한 생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sup>23)</sup>

---

출: 기독교문사, 1983), 413.

20) 『신자생활의 첩경』. 서론 1면.

21) “본서는 모두 칠장으로 되었는데 사경회에서 공부할 때에 하루 한 장씩 마치면 좋은 줄로 안다. 그러나 시간상 관계로 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 칠장을 공부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책, 서론 1면.

22) 『야소의 사회훈』은 1930년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간된 책으로 Walter Rauschenbusch의 *Social Principles of Jesus*를 번역한 책이다. 이 책 역시 편집상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데, 각 장별로 7일간의 일자별 제목이 제시되고, 그 제목 하에 네가지 항목의 세부 연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스터디 북 형식을 취하고 있다.

23) 비슷한 성격을 갖는 책인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 국민, 교회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신앙적 경건과 구체적 윤리적 생활의 조화를 꾀하던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는 책이라는 점이다. 구조적으로 볼 때 제 1,2장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윤리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3,4장에서는 개인윤리적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5,6장에서는 사회윤리적 주제를 다룬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7장에서 ‘경건 생활’이라는 주제를 통해 신앙, 교리와 삶의 이원론적 분리를 극복하며, 윤리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의 구성으로 보자면 일종의 샌드위치식 구조라고도 볼 수 있다. 신앙교리와 생활의 이중성 극복,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통전성 확보는 당시 한국 교회의 절대적 요청 혹은 지향점이었으며, 이 책은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장별 주제 및 윤리적 특징

장별 주제와 세부 내용, 그리고 윤리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장별 주제             | 세부 내용 구성  | 윤리적 특징                        |
|-------------------|---|-------------------------------|
| 제1장<br>신자와 성신     | 1. 성신의 위 2. 성신은 각 신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 3. 성신의 하시는 역사 4. 성신을 충만히 받게 하심 5. 성신에 대한 죄      | 하나님에 대한 신앙,<br>성경의 기초         |
| 제2장<br>신자와 성경     | 1.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2. 신자가 자기 생활의 표준으로 받음  |                               |
| 제3장<br>신자와 주일     | 1. 안식일의 연원 2. 안식일에 대한 명령 3. 안식일을 지키는 방침 4. 안식일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 5. 신자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 개인윤리 차원의 가르침(주일과 가정의 문제)      |
| 제4장<br>신자와 그의 가정  | 1. 가정의 근본 2. 가정은 단체 3. 남편과 아내 4. 부모와 자녀 5. 자녀의 혼인 6. 가정 기도회                     | 사회윤리 차원의 가르침(오락, 청지기, 제물의 문제) |
| 제5장<br>신자와 오락     |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2. 오락의 표준  |                               |
| 제6장<br>신자와 청지기    | 1. 청지기의 책임 2. 청지기 직분의 범위 3. 연보 드리는 원리   |                               |
| 제7장<br>신자와 경건한 생활 | 1. 경건한 생활의 필요 2. 규칙적으로 할 것 3. 경건한 생활 4. 참 경건한 생활의 결과                            | 신자의 경건생활(신앙의 재구조 / 신앙과 삶의 통합) |

#### 4. 책 5, 6장 들여다보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논문의 지면 관계상 사회윤리를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주며 초기 교리서 및 다른 윤리관련 서적들과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제 5장과 6장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 윤리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제 책의 주요 대목을 필요한 내용을 짚어가며 현대어 읽기를 통해 정리 해본다. 현대인들이 읽기에 의미상 불편함이 없는 표기들은 다소 어색하더라도 원문대로 표기했다.<sup>24)</sup>

##### 1) 제5장 분석: 오락에 대한 적극적 이해

제5장은 신자와 오락에 대한 논의인데, 오락의 유용성과 구체적인 표준을 성경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 제5장 신자와 오락

오락은 신자 생활 가운데 마땅히 있을 것인데 적당한 오락은 필요한 것이며 많은 유익이 있다.

- 1) 기쁜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슬프고 답답한 신자는 영화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신자는 마음 가운데 소멸시킬 수 없는 기쁨이 있음으로 남의 즐거움 가운데 참석하며 다른 사람에게 더욱 기쁨을 끼칠만한 일을 할 것이다. (벧전 1장 7절, 잠언15장 13-15절, 17장 22절)
- 2) 테니스와 베이스볼<sup>25)</sup>과 기타 운동은 몸을 강건케 하면서 자기를 이

24) 책의 본래 번호 부여 및 대별, 해당 면수 등을 필요한 경우에 밝혔고 별도의 각주, 인용 표기는 붙이지 않았다.

25) 테니스, 베이스볼에 대한 언급은 이채롭다. 대부분의 서양 운동을 국내에 소개한 사람들은 구한말 선교사로 체육사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야구협회에서는 야구의 유

기며 다른 사람과 합동함을 가르치는데 매우 유익하며 이러한데 참가하는 중에 주님을 증거 하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

- 3)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적당한 유희를 할 것이며 또한 장려함으로써 가정생활도 발전이 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정과 신임이 생기게 된다. 유년과 청년들이 집에서 부모의 인도로 유희를 할 것 같으면 많은 시험을 면하고 밖에 있는 불신자와 놀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해 받는 것을 면하게 된다.

#### 4) 신자 오락의 표준

어떠한 오락이 적당한지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떠한 표준을 세우고 따라갈 것이다.

- (1) 골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일을 행하고 저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다. 무슨 오락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한 마음과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 (2) 롬14장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 하는 것과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쓸 것이다. 우리 모든 행실의 표준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마땅하지만 과히 행하여 시간과 재산과 힘을 소비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 또는 어떤 것은 적당한 것이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더욱 높은 직분이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나 그 밖에 다른 일을 방해시킴으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주일에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나 베이스볼을

---

래를 1904년 기독교청년회(현 YMCA) 창립 공로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인 질레트(P. S. Gillet)가 청년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국 야구의 첫걸음이었다 “라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미국인 선교사 뱅커와 제중원의 앤더슨에 의해 정식 테니스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다.

하는 것이나 뱃놀이를 다니는 것들은 다 좋지 못한 일이다.

- (3) 이 위에 기록한 두 표준과 청지기 직분의 이치를 의지하면 모든 오락에 대한 문제를 옹계 해결할 수 있다.

제5장에서 언급된 오락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가르침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5장에서는 성실한 노동과 직업에의 종사 뿐 아니라 현대윤리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오락에 대한 논의를 볼 수 있다. 오락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논의 자체가 매우 이채로운 일이다. 이 책은 오락을 단순한 쉼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쁨을 끼치게 되는 적극적인 행위로 권하고 있다. 책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앞선 4장에서 언급한 '가정의 중요성'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정에서의 유희, 오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당한 유희가 부모, 자녀의 사이에 동정과 신임이 생기게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테니스, 베이스볼 등 구체적인 운동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이기며 다른 사람과의 협동을 가르치며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도 된다고 그 유용함을 강조한다. 시대 상황이 일체 강점기 가운데 기독교가 성장과 발전을 멈추고 여러 면에서 비판과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한 권면으로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독교가 여러 면에서 소수인 선교 초창기임을 감안해 볼 때, 불신자와 어울려 해 받는 것을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변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오락의 표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유교적 전통 속에서의 일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따라서 육체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최대한 활동을 절제하면서 체면을 지키는 것이 고상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전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할 것과 모든 행실의 표준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다. 즉 적당한 것이 라도 더욱 높은 직분이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 방해가 될 때에는 좋지 못하다는 권면을 한다. 예를 들어 주일에 낚시, 뱃놀이, 베이스볼 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은 놀이나 운동이 사람들에게 주일을 지키는 일을 방해하거나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가 이미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대중화되지 못하고 선교사 및 외국인 들을 중심으로 일부 계층만이 누리고 있던 오락에 관한 논의가 갖는 다양한 비판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논의 그 자체에도 일정한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시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생소하였을 스포츠 경기가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음도 주목할 대목이다.

## 2) 제6장 분석: 청지기직의 구체화

제6장은 청지기의 직분, 시간, 재정, 연보 등에 관한 가르침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재물과 시간 등을 바치는 사람임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책 속에서 볼 수 있다.

### 제6장 신자와 청지기

#### 1) 청지기의 책임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가지도 온 것이 없으며 세상을 떠날 때에도 또한 아무것도 갖지 못하리라 하였다. 신자가 알기를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재물, 토지, 권세인데 이런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은 것이다. 이것은 아주 무거운 책임이 되는 것이니 시편<sup>24</sup>편 1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서 소유권을 가지신 것이다.

2) 청지기 직분의 범위

1. 하나님의 오묘한 도(고전 4장 1절)

자기만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과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2. 우리의 육체 (고전 6장 19-20절, 고후 8장 5절, 롬 12장 1절)

우리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뜻을 확실히 알면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참 영광을 드리려고 힘쓸 것이다.(롬12장1절) 이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린 후에야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할 은혜를 받을 것이다.

3. 우리의 시간(엡 5장 6절)

세월이 속히 지나감에 따라서 봉사하고 증거할 기회도 그러하다.

4. 우리의 재정

우리 자신과 모든 재물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맡기신 것뿐인 줄로 알면 자기 재정을 옳게 사용하기 위하여 성신에게 특별한 지도를 받을 줄로 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1)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대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하여 십일조를 드렸다. (레 27장 30-33절, 신 14장 22-28절) 이리함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 일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예산하면 수입에 대하여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2) 신약에도 재정에 대한 태도와 마땅히 사용할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

3) 연보 드리는 원리

- (1) 신자의 자신이나 있는 것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하나님께 맡은 것이다.
- (2) 이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입 중에 일정한 부분(십일조 이상)을 성신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따로 두고 쓸 것이다.
- (3)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것은 엄한 책임이 될 뿐만 아니라 귀한 특권이니 각 신자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특권을 이용할 것이다.
- (4) 모든 연보는 교회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알고 주님에게 드릴 것인데 교역자의 봉급으로나 다른 뜻으로 사용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 (5) 주님께서 연보의 크고 적은 것을 보시는 것보다 그 드리는 마음과 드리고 남은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보신다. (마 6장 1-4절, 눅 21장 1-3절)
- (6)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비례와 드리고 남은 돈을 쓰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표시를 나타낸다.

제6장에서 분석한 청지기직과 재정, 연보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청지기로서의 책임, 자세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청지기는 신자들에게 부여된 재물 관리의 소중함을 잘 드러내 주는 성경적

표현이다. 지금도 개신교 경제 윤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상징적인 용어이기도 하다. 청지기란 말 속에는 사람들의 주요 관심인 재물, 토지, 권세 등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담겨 있다.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여, ‘복음에 빛진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육체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힘써야 한다. 청지기 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관련되는 것은 장로교적 전통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시간 관리의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지적한 좋지 못한 풍속 가운데 시간관념이 빈약하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단순한 시간 관리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론적 이해의 면모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속히 지나가므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 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 남은 세월을 조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다면, 역사적 관점에서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메시아적 희망의 때가 다가올 것이란 희망적 메시지의 은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청지기 직분이 미치는 범위를 언급하면서, 특히 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많다. 우리 자신과 모든 재물은 “주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옳게 사용하기 위하여 성신의 특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는 점이 강조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약시대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태도와 십일조의 유래,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신자들의 중요한 신앙적 모습으로 강조하는 십일조 헌금과 주일 성수는 한국

교회 초창기부터 강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자생활의 첩경』에서는 십일조 뿐 아니라 ‘십이조’란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중심으로 연보의 원리를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회 사업을 위해 쓰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가르치며, 드리는 태도에 있어서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의 많고 적음을 보고 연보의 온전함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금 또는 연보의 사용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신자생활의 첩경』이란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노동, 오락, 쉼, 주일 성수, 재물, 연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적 가르침을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선교사들에 의해 번역 또는 출간 되어진 ‘기독교윤리 문헌’들의 가르침은 개인윤리적 차원에서의 개인, 가정, 교회, 직업의 현장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생활윤리 혹은 생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논의의 정교함에 있어서 조금 단순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노동과 오락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던 상황 속에서 노동, 오락, 쉼, 재물 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안정과 발전의 흐름이 계속 되면서 직업, 재물 등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이해와 가르침 등을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전술했듯이 『신자생활의 첩경』은 신자들의 경건생활을 교육한 저서였

으며 서문에서 이러한 저술 동기를 밝혔다. 이 책 등 ‘기독교윤리 문헌’들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절실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윤리적 가르침들을 선별하여 번역,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구성의 흐름과 논지를 놓고 볼 때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 생활에 관해서는 상당히 정교한 생활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가, 사회 의식 등 적극적 사회윤리 및 정치윤리라 볼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되어 언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갱신과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회든 국가나 사회 속의 법과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한계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의 한계 상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당시 간행된 기독교윤리 문헌들 대다수가 초기교리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언급 내용들이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다는 점, 즉 지금도 특별한 논의에 속하기 쉬운 오락, 청지기, 직업, 경건 생활 등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신자생활의 첩경』 등 일제강점기의 기독교윤리 문헌들은 주목할 만한 책들이다. 한국교회 초기의 기독교윤리에 대해 십계명, 산상수훈 등 성경 본문의 규범적 조항들을 제시하는 초보적인 것이나 일제강점기의 초중등 교과서인 ‘수신’(修身) 교과서와 비슷한 도덕적 논변 정도로 생각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창기의 사회적 영향력 중 하나는 시대를 앞서서 윤리적 해안과 가르침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교회 초기의 ‘기독교윤리 문헌’들을 되짚어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 신앙 선각자들의 윤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Stanly, Soltau T. 『신자생활의 첩경』. 서울: 조선예수교서회, 1935.

### 2. 참고자료

강명숙.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서울: 백산자료원, 1999.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기독교대백과사전(9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3.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편). 『기독교대백과사전(10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3.

김명배. 『세계교회사 전통에 비추어본 한국 기독교사』. 서울: 북코리아, 2010.

김인수. 『일제의 한국교회 박해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김영재. 『한국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2004.

민경배. 『글로벌시대와 한국,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박종홍. “서구사상의 도입 비판과 섭취”. 『아세아연구』 제35집. 1969.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서신혜. “기독교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제26집. 2013, 149-177.

손정숙. “일제 시기 백화점과 일상 소비문화”.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133-154.

신지영. “가정'과 '여성성'의 추상화와 감각의 리모델링”. 『일제 식민지 시기 새로 읽기』. 서울: 혜안, 2007, 235-281.

윤시순·이광래. 『우리 사상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이광래. 『한국의 서양사상 수용사』. 서울: 열린책들, 2003.

이광수. “今日朝鮮耶穌教會의 欠點”. 『青春』 11호. 1917. 11.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2000.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통일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만열. 『한국 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3.

논문투고일: 2014. 06. 30.

심사개시일: 2014. 07. 11.

게재확정일: 2014. 08. 09.

---

 • 국 문 조 록 •
 

---

일제 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및 주요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윤리 문헌’들을 찾아보는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1935년에 발행된 『신자생활의 첩경』(信者生活의 捷徑)은 전통적인 교리 요약이나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적 내용, 성경적 내용, 개인윤리적 영역과 사회윤리적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특징이 있다. 특히 기독교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 받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윤리나 사회윤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조망을 통해 시대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즉 기독교가 성경과 교리라는 텍스트에 함몰되어서 당시 처해 있는 민족의 문제에 답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소개하려 했는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신자생활의 첩경』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공유되지 못한 상황 극복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외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기독교윤리 인식, 『신자생활의 첩경』, 솔타우, 일제강점기, 기독교교리서

---